

Market Strategy

2016.08.08

 KB투자증권

사드 (THAAD)가 촉발한 중국의 반한 (反韓) 움직임 – 저강도 규제는 고강도로 확산될까?



백찬규 / Strategist
3777-8433
ckcien@kbsec.co.kr

서영재 (R.A)
3777-8093
yj.seo@kbsec.co.kr

- ✓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 움직임
- ✓ 중국의 저강도 보복 움직임 가능성으로 차이나 컨슈머주 하락
- ✓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려는 중국은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응을 피할 것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 움직임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어체계인 사드 (THAAD: 고고도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였다. 사드 후보지로 결정된 성주에서의 정치권의 격돌은 연일 뉴스의 중심에 자리했다. 이에 대한 반향은 중국에서 나왔다. 지난 한 주간, 서해를 건너온 중국의 규제 관련 뉴스와 루머에 증시는 몸살을 앓았다. 결국 중국 상용비자 발급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면서 우려는 확산되었다.

중국의 저강도 보복 움직임 가능성으로 차이나 컨슈머주 하락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중국은 일본 제품 배격시위를 펼쳤다. 중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비난과 고강도 제재, 역사 청산 문제와 더불어, 집단 행동에 민감한 중국정부의 제지도 없어 격렬한 파괴 시위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 정부의 묵인과 방치로 발생한 관제 시위라 표현하면서 비난할 정도였다.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와 일본 매장의 파괴까지도 벌어졌다.

다만 일본의 경우 역사적 문제와 더불어 영토 분쟁이었다는 것이 다르다. 이번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저강도 보복 가능성은 이어질 수 있다. 저강도이기에 또한 장기화될 수도 있다. 국제법과 무역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시 내 차이나 컨슈머 관련주인 화장품, 미디어콘텐츠, 레저, 엔터, 면세, 여행 업종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을 보였다.

Global Game Changer를 꿈꾸는 시진핑의 중국은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응을 피할 것

시진핑 정권 수립 후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 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국제법이나 무역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고강도 정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국가 간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향후 규제의 규모, 강도 및 정점 통과 시점을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 및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한다면 초기 관련주의 전반적인 하락 이후 품질과 경쟁력으로 지닌 업종과 대표 업종의 차별화를 기대할 수 있다.

Contents

사드(THAAD)가 촉발한 중국의 반한(反韓) 움직임	4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 움직임	4
과거 중국의 고강도 대응책이 발생한 사례는 영토가 핵심, 경제적 피해는 막대	5
중국의 저강도 보복 움직임 가능성으로 차이나 컨슈머주 하락	6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시진핑의 중국은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응을 피할 것	7
KB 투자증권 모델 포트폴리오 종목 및 수익률	8
MP Valuation Table	9
KOSPI 주간 업종별 등락률 및 EPS 증감률	10
Focus Charts	12
Event Calender	18

사드 (THAAD)가 촉발한 중국의 반한 (反韓) 움직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 움직임

한국 정부가 사드 (THAAD: 고고도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였다. 사드 후보지로 결정된 성주에서의 정치권의 격돌은 연일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대한 반향은 중국에서 나왔다. 지난 한 주간, 서해를 건너온 중국의 규제 관련 뉴스와 루머에 증시는 몸살을 앓았다. 결국 중국 상용비자 발급요건을 엄격하게 바꾸었으며, 광전총국의 규제 등으로 우려는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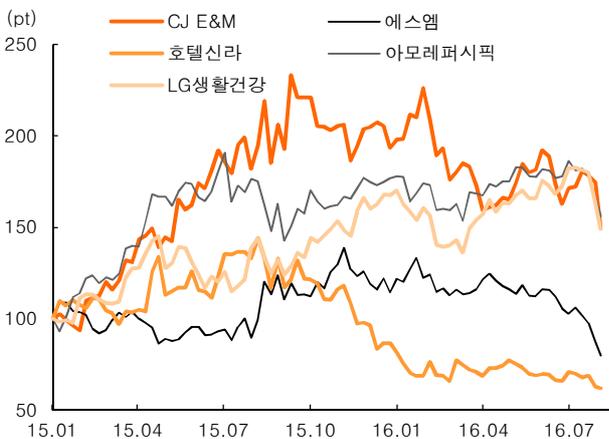
지난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 전략적 우위를 노리는 것이라 비판했다. 비단 인민일보 뿐이 아닌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규제의 첫 번째 단계인 여론 조성이 나섰다. 이는 문화적 측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파이공 및 요우커 등 인적 이동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다음 단계로의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 경제와 무역에 대한 제재가 다음이며, 심화될 경우 최종 단계인 정치, 외교 차원의 중국 정부의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그림 1. 한국 내 사드 일지 및 이에 따른 중국 대응



자료: 각 언론, KB투자증권

그림 2. 차이나 컨슈머 대표주의 하락 발병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주: 2015년 1월 1일 = 100pt 기준

그림 3. 중국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

-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가능하며, **관련서류가 제출되어야** 대사관접수가 진행됩니다. (전화는 문약만 가능, 접수불가)
- 별지비자 접수는 2인 이상 그리고 동일한 일정인 경우 각 여권복사본과 항공일정을 당사에 팩스 또는 카톡으로 제출하면 됨
- 중국 단체비자와 별지비자를 제외한 모든 중국비자는 여권과 사진 등 **상제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권사본 접수불가)
- 여권서류 접수 후 여권정보는 확인 불가하오니 접수전 여권을 복사하여 소지하시면 편리합니다.
- 여권커버, 마일리지카드 등은 본실의 위험이 있으니 관련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실 시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중 사진은 여권용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복사사진 안함)
- 중국대사관의 비자 규정 강화로 관광비자(L), 단체비자 접수 시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 2016년 8월 02일 부터 **비즈니스비자 즉 상용비자(M) 초청장 대행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 현지 초청장 소요시간으로 1일이 추가소요됩니다. (아래 요금은 당사에서 초청장 발급대행 비용모함)
- 외교관/관광여권 소유자는 비자신청 전 반드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상용비자접수불가/ 관광비자는 추가서류 필요)
- 당일비자는 당일 오전 9시까지 접수분에 한합니다. 발급은 당일 오후 4시~5시 정도에 발급됩니다.

비자종류	비자구분	유효기간	최대체류일
상용 6개월 복수 (M)	복수(신규)		잠정중단
상용 6개월 복수 (M)	복수(신규)		잠정중단
상용 6개월 복수 (M)	복수(신규)		잠정중단

자료: 중국비자 대행업체 홈페이지, KB투자증권

과거 중국의 고강도 대응책이 발생한 사례는 영토가 핵심, 경제적 피해는 막대

2012년 9월 중국 주요 도시의 닛산과 도요타 대리점에 돌맹이가 날아들었으며, 중국 파나소닉 공장엔 화재 발생과 더불어 생산라인이 파괴됐다.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났으며, 일본 제품에 대한 배격시위를 펼쳤다. 중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비난과 고강도 제재, 역사 청산 문제와 더불어, 집단 행동에 민감한 중국정부의 제지도 없어 격렬한 파괴 시위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 정부의 묵인과 방치로 발생한 관세 시위라 표현하면서 비난할 정도였다. 중국인들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2012년 일본의 대중국 교역액은 3.5조엔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0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달라이 라마 이펙트’ 라는 말 역시 중국의 정책에 반할 경우 경제, 무역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나타난 신조어다. 독일 괴팅겐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경우 그 해 해당국가의 대중국 수출이 16.9% 하락하며, 정부 관료가 만날 경우 수출 감소 폭은 8.5%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2007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난 이후 중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 (투자계획 및 대규모 구매 계획 철회 등) 에 따라 중국에 대한 사과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야 했다. 2013년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티베트 지배에 반대하는 달라이 라마를 만났으며, 이에 따른 중국의 영국 투자가 전면 지연됐었다. 실제로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 지역의 독립 운동으로 인해 머리가 아픈 중국 정부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강도 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국가 수반의 공개적 사과로 연결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 고강도 제재가 발생했던 사건들의 공통점은 중국의 영토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깊다.

그림 4. 주요국의 중국과의 갈등에 따른 경제제재 연혁

연도	대상국	갈등원인	경제제재
2000	한국	중국산 마늘 세이프 가드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 차단
2008	프랑스	사르코지 달라이라마 회동	에어버스 150대 주문 취소
2009	필리핀	남중국해 영해권 분쟁	과일류 검역 강화, 단체관광 취소
2010	노르웨이	류사오보 노벨평화상 수상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규제
2010	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희토류 수출 중단,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2012	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일본 수출품 통관 강화, 일본 관광상품 접수 중단
2014	베트남	남중국해 영해권 분쟁	중국 진출 베트남 기업 사업입찰 중지

자료: 각 언론, KB투자증권

그림 5. 센카쿠 열도 분쟁과 중국의 대규모 반일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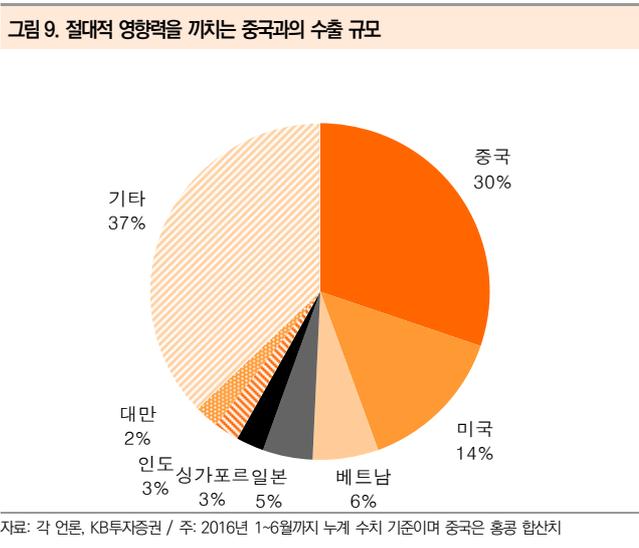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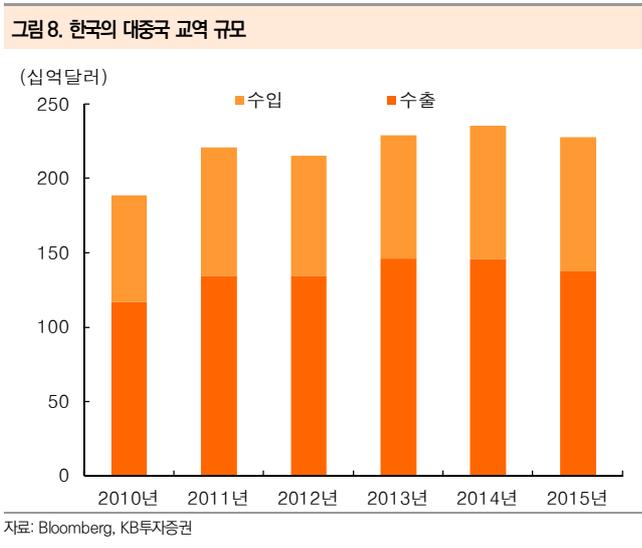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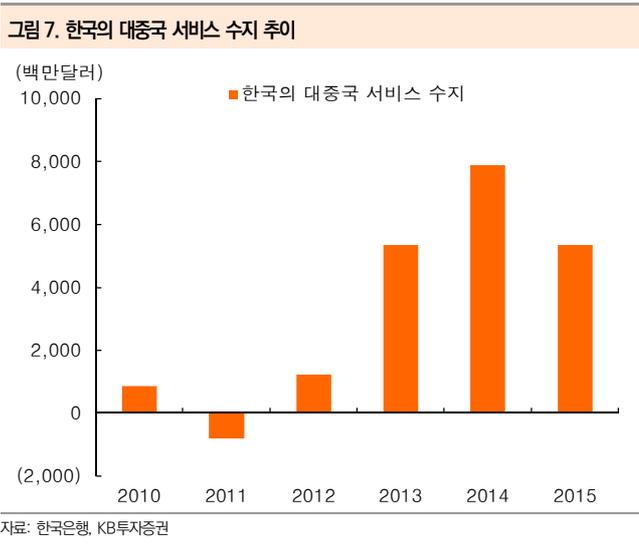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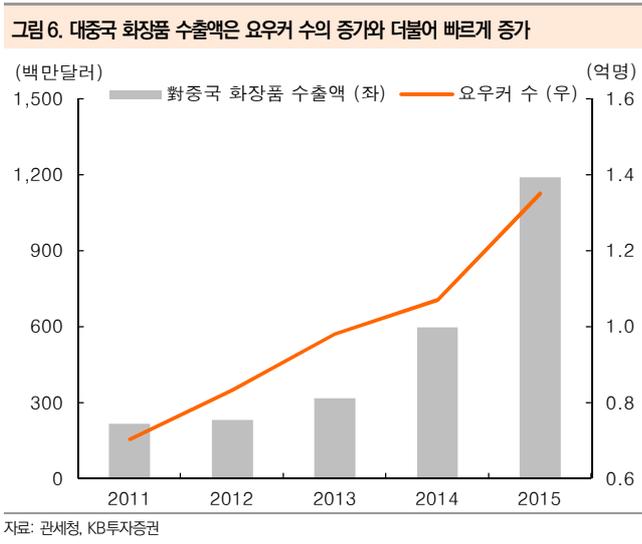


자료: 각 언론, KB투자증권

중국의 저강도 보복 움직임 가능성으로 차이나 컨슈머주 하락

다만 앞서 말한 센카쿠 열도 및 달라이 라마 이펙트의 사례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점은 역사적 문제와 더불어 영토 분쟁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저강도 보복 가능성은 이어질 수 있다. 저강도이기에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 국제법과 무역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시 내 차이나 컨슈머 관련주인 화장품, 미디어콘텐츠, 레저, 엔터, 면세, 여행 업종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을 보였다.

고민은 앞서 언급한 중국의 대한국 제재 단계에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 경제에 있어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글로벌 3위 수출국이자 1위 수입국이다. 본격적으로 경제, 무역 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의 주력 수출 영역인 중간재와 자본재 조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은 수출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아직까지는 여론몰이 혹은 비자, 광전총국의 압력 등 소수의 업종에 영향력을 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대한국 제재에 대한 것이 저강도 수준에서 고강도로 단계가 상승하는 것과 여타 업종으로의 확산에 대한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시진핑의 중국은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응을 피할 것

시진핑 정권 수립 후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 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권역에서 과거 중화사상과 유사하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역시 무관하지 않다. 과거 자국의 이득만을 바라보고 흑백론을 펼치기 어렵기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대응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국제법이나 무역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고강도 정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및 중국의 수출 구조를 점검하면 제재 강화에 대한 우려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가 간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향후 규제의 규모, 강도 및 정점 통과 시점을 가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 및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한다면 초기 관련주의 전반적인 하락 이후 품질과 경쟁력으로 지닌 업종과 대표 업종의 차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중국과의 갈등이 발생된 지금 1) 중국의 저강도 제재 상황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업종과 그 수준이 약한 업종을 구분하고, 2) 제재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업종에서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 이후 회복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중국의 저강도 제재 상황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업종과 그 수준이 약한 업종의 구분: 중간재 및 자본재의 경우 소비재와 서비스 대비 상대적으로 중국의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졌을 경우 대체제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에 차별화된 경쟁력과 실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의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다.

2) 제재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업종에서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 이후 회복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 제재 영향이 큰 업종은 최근 급락한 화장품, 레저, 엔터, 콘텐츠, 여행, 면세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다만 화장품 업종의 경우 동아시아 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재에 따른 펀더멘탈의 훼손보다는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업종의 경우 저강도 규제가 장기화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나머지 레저, 엔터, 여행, 면세 업종의 경우 장기 펀더멘탈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 가격조정에 따른 매수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KB투자증권 모델 포트폴리오 종목 및 수익률

Strategist 백찬규 선임연구원 (3777-8433)

표 1. MP 수익률 및 BM 대비 상대수익

KB투자증권 MP	MP 수익률 (%)	KOSPI (%)	상대수익률 (bp)
2016-08-05	2.96	1.74	122

자료: KB투자증권
주: 6월 1일 포트폴리오 개시

표 2. MP 종목 및 개별 수익률

종목	코드명	편입일	편입 주가	현재 주가	수익률 (%)	상대수익률 (%)
삼성전자*	005930	2016-05-31	1,292,000	1,561,000	20.82	19.08
한국전력	015760	2016-05-31	62,900	61,100	-2.86	-4.60
KT&G*	033780	2016-05-31	127,500	123,000	-3.53	-5.27
강원랜드*	035250	2016-05-31	42,550	40,700	-4.35	-6.09
CJ	001040	2016-05-31	217,000	183,500	-15.44	-17.18
LIG넥스원*	079550	2016-05-31	99,300	106,000	6.75	5.01
만도*	204320	2016-05-31	222,000	248,000	11.71	9.97
KT	030200	2016-08-01	31,750	32,300	1.73	1.65
SK머티리얼즈*	036490	2016-07-01	125,600	159,000	26.59	25.05
대한해운	005880	2016-07-01	17,200	20,500	19.19	17.65

자료: KB투자증권
주: * 표시 종목은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표 3. MP 종목 Comment

종목	편입일	편출일	Issue
삼성전자	2016-0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2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7을 공개. 갤럭시노트 7은 전작대비 흥채인 식, S펜강화, 방수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 갤럭시노트 7은 8월 19일부터 출시되며 애플 아이폰 7 출시 1개월 전까지 프리미엄폰 대기 수요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V6.0 마쉬멜로 OS), 메모리 (메인 메모리 4GB, 저장 64GB), 디스플레이 (QHD super AMOLED 518ppi 듀얼 엣지), AP (엑시노스 8890 옥타코어), 카메라 (전면 500만, 후면 1200만 화소), 배터리 (3500mAh) 등을 탑재
한국전력	2016-0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은 연결기준 2Q16 잠정 매출액 13조원 (-2.9% YoY), 영업이익 2.7조원, (+29.5% YoY), 당기순이익 1.7조원 (+32.3% YoY)을 기록. 시장 컨센서스와 비교 시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기대에 부합. 그러나 KB투자증권 전망치를 기준으로는 각각 11.9%, 16.5% 하회 전력조달원가 감소가 영업이익 증가의 원인. 전년동기대비 연료비는 4,978억원, 구입전력비는 3,844억원 감소. 전력수급을 타이트하게 유지한 것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 전력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반면, 가용전력 (GENCO 발전량 + IPP전력 구입량)은 1.4% 늘리는 데 그침. 그 결과 직전 전망에서 4.1% 늘어날 것으로 KB투자증권이 예상했던 IPP LNG전력의 구입량이 실제로는 3.1% 감소.

자료:KB투자증권

MP Valuation Table

표 4. 8월 KB투자증권 모델 포트폴리오 Earnings & Valuation

종목명 (코드번호) (업종)	시가총액 (억원)	연도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ROE (%)	OPM (%)	PER (x)	PBR (x)	베타 (x)	변동률 (%)	
삼성전자*		2015	2,006,535	264,134	11.2	13.2				1M	6.3
005930	2,211,458	2016 (E)	2,063,656	305,793	13.0	14.8	10.5	1.2	1.0	3M	21.0
IT		YoY (%)	2.8	15.8						12M	34.7
한국전력		2015	589,577	113,467	22.1	19.3				1M	3.4
015760	392,240	2016 (E)	593,860	143,339	13.8	24.1	4.4	0.5	0.6	3M	-0.7
유틸리티		YoY (%)	0.7	26.3						12M	18.4
KT&G*		2015	41,698	13,659	17.5	32.8				1M	-8.6
033780	168,870	2016 (E)	44,261	14,451	16.8	32.6	14.9	2.2	0.3	3M	-1.6
담배		YoY (%)	6.1	5.8						12M	12.3
강원랜드*		2015	16,337	5,954	15.5	36.4				1M	-2.3
035250	87,074	2016 (E)	17,368	6,492	16.2	37.4	16.0	2.4	0.7	3M	-5.5
카지노		YoY (%)	6.3	9.0						12M	-1.3
KT		2015	222,812	12,929	6.0	5.8				1M	7.0
030200	84,339	2016 (E)	223,499	13,332	6.2	6.0	10.8	0.7	0.4	3M	2.1
통신		YoY (%)	0.3	3.1						12M	5.2
종목명 (코드번호) (업종)	시가총액 (억원)	연도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ROE (%)	OPM (%)	PER (x)	PBR (x)	베타 (x)	변동률 (%)	
CJ		2015	211,667	12,253	5.9	5.8				1M	-12.8
001040	53,500	2016 (E)	232,045	13,356	20.5	5.8	18.7	1.3	1.0	3M	-16.4
주주		YoY (%)	9.6	9.0						12M	-40.5
LIG넥스원*		2015	19,037	1,122	17.8	5.9				1M	10.8
079550	23,320	2016 (E)	20,821	1,418	17.5	6.8	18.3	3.1	0.7	3M	13.9
방산		YoY (%)	9.4	26.4						12M	0.0
만도*		2015	52,992	2,656	10.6	5.0				1M	18.9
204320	23,291	2016 (E)	56,375	2,744	13.3	4.9	11.6	1.5	0.6	3M	34.4
자동차부품		YoY (%)	6.4	3.3						12M	127.5
SK머티리얼즈*		2015	3,380	1,128	18.9	33.4				1M	25.2
036490	16,771	2016 (E)	4,724	1,599	27.0	33.8	13.0	3.1	1.1	3M	40.1
특수가스		YoY (%)	39.8	41.7						12M	32.0
대한해운		2015	5,317	860	7.4	16.2				1M	19.5
005880	5,007	2016 (E)	4,684	630	4.8	13.4	8.9	0.8	1.1	3M	20.9
운송		YoY (%)	-6.3	-24.6						12M	-16.3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주: *은 당시 유니버스 종목이 아님. PER 및 PBR은 12개월 선행 컨센서스 기준 / Valuation Table은 8월 5일 증가 기준

KOSPI 주간 업종별 등락률 및 EPS 증감률

전략 R.A 서영재 연구원 (3777-8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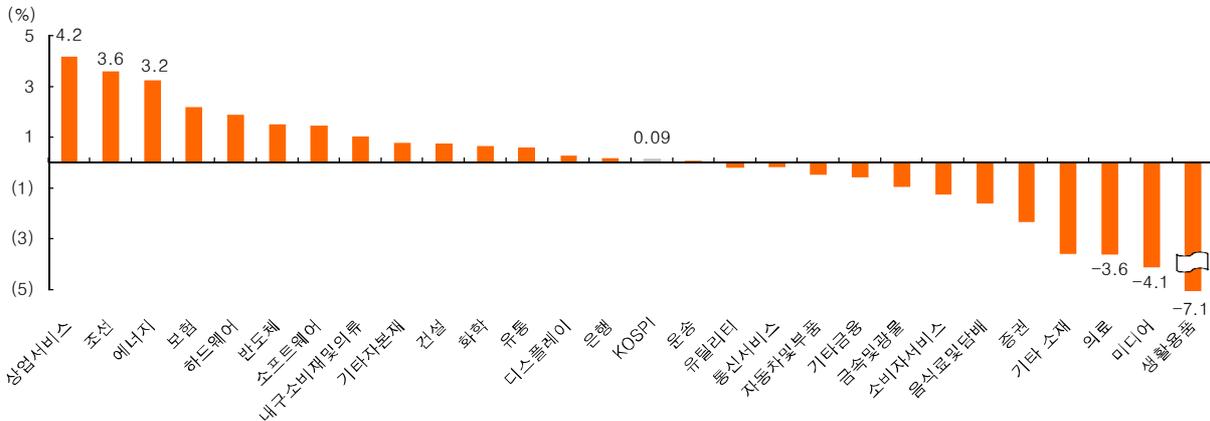
KOSPI는 지난 한 주 동안 0.09% 상승하였다. Fnguide Industry Group 기준으로 상업서비스가 4.2%, 조선이 3.6%, 에너지 업종이 3.2% 상승한 반면, 생활용품이 7.1%, 미디어가 4.1%, 의료 업종이 3.6% 하락하였다. 일본 정부의 28조엔에 달하는 경기 부양 정책과 BOE의 추가 완화 정책 채택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하였으나,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보합 마감했다.

상업서비스 업종은 한화테크윈이 9.8%, 에스원이 7.4% 상승하면서 업종 지수 호조를 견인했다. 한화테크윈이 경우 4일 공시를 통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44억 9,000만원, 당기순이익이 31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외국인이 397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에스원은 7월 21일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31억원으로 22.3% 증가했음에도 영업일 기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8월 1일을 기준으로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호조를 보였다.

조선 업종은 현대중공업이 6.4% 상승하면서 지수가 호조를 보였다. 7월 27일 연결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5,572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적 호조는 수익성 높은 선박 건조 비중과 대형공사 인도에 따른 공정 안정화 체인지 오더 체결 등에 기인했다. 또한, 자회사 현대오일뱅크가 영업이익 3,234억원을 기록한 점도 실적 호조에 영향을 주었다.

생활용품 업종은 업종 구성 종목 전반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했다. 개별 종목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은 잇츠스킨으로 한 주 동안 14.2% 하락했다. 이외에도, 업종 내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이 6.4%, 아모레G가 2.8%, LG생활건강이 8.7% 하락했다. 이는 한국의 사드 배치 최종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 보복 우려에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0. 주간 KOSPI 업종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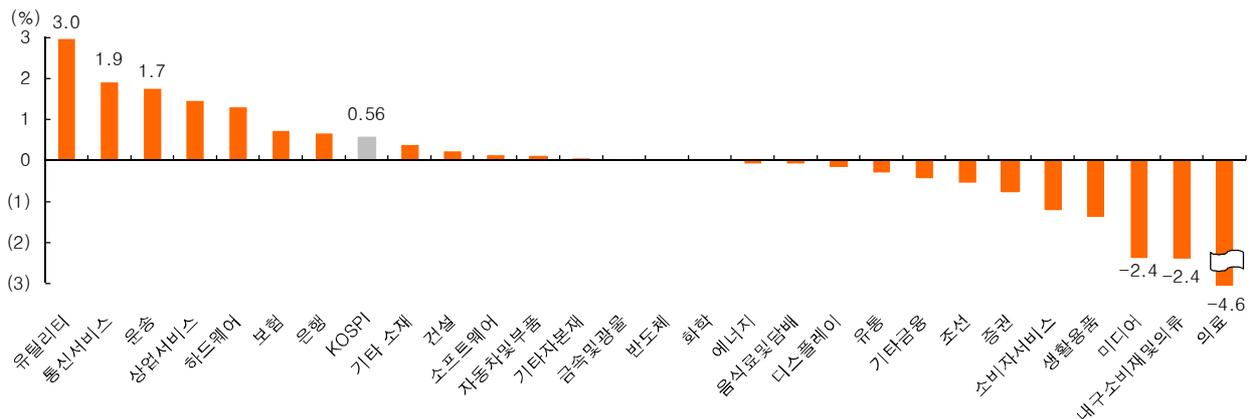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KOSPI EPS 추정치는 지난 한 주 동안 0.56% 상향되었다. Fnguide Industry Group 기준 유틸리티 업종의 EPS 추정치는 한국전력의 추정치 변경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한국전력의 2분기 호실적과 전력원가 하락 수혜 지속, 구입 전력 절감에 따른 추정치 상향으로 판단된다.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KT의 EPS 추정치가 5.6% 증가하면서 상향되었다. KT는 ARPU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무선수의 부문 수익이 증가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 및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연결자 회사의 매출 호조 또한 EPS 추정치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의료 업종의 경우 한미약품이 북경한미 위축 및 기술료 기고 효과로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EPS 추정치가 하향된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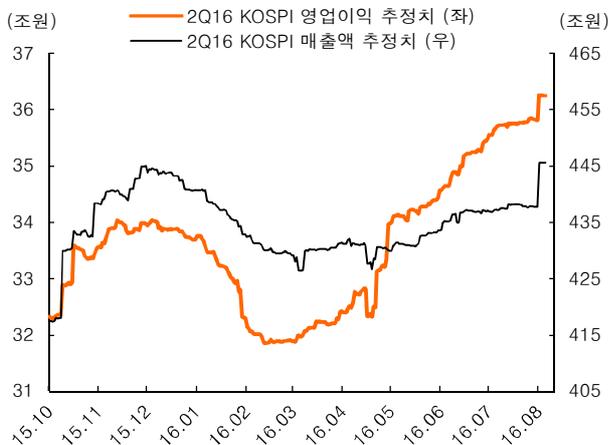
2Q16 KOSPI 영업이익 및 매출액은 전주 대비 상향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2016년 연간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전주대비 상향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간기준 매출액의 개선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메르스 기저효과에 따른 2분기 GDP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비롯 수출 등의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3분기 실적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그림 11. 주간 KOSPI EPS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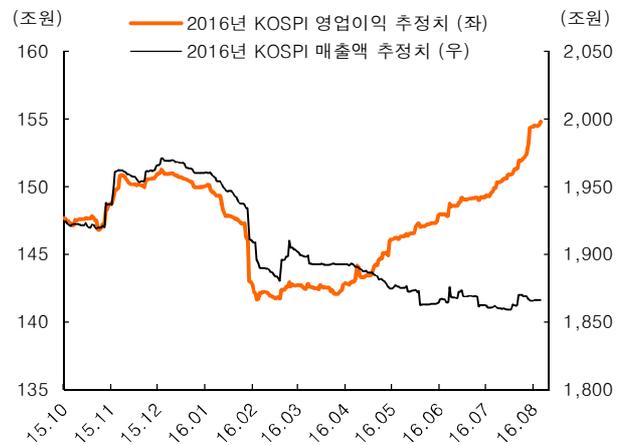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그림 12. 2Q16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치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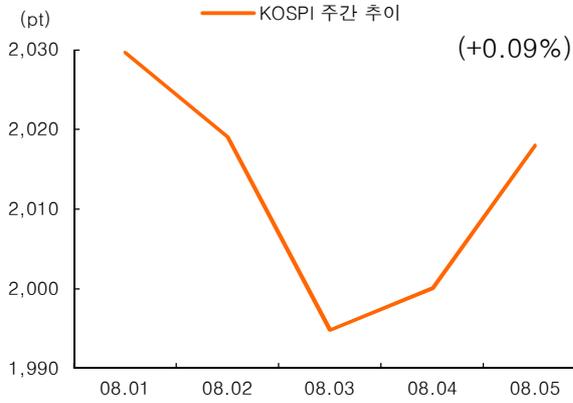
그림 13. 2016년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치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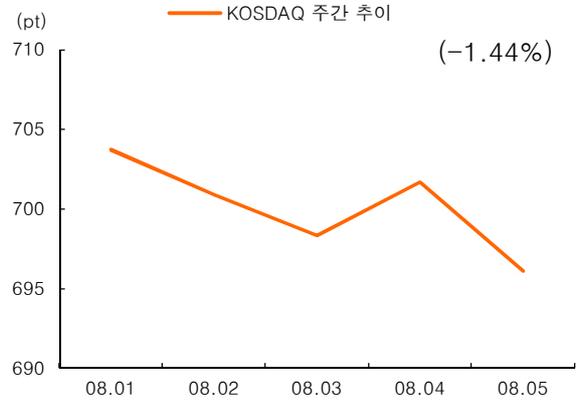
Focus Charts

그림 14. 주간 KOSPI 추이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그림 15. 주간 KOSDA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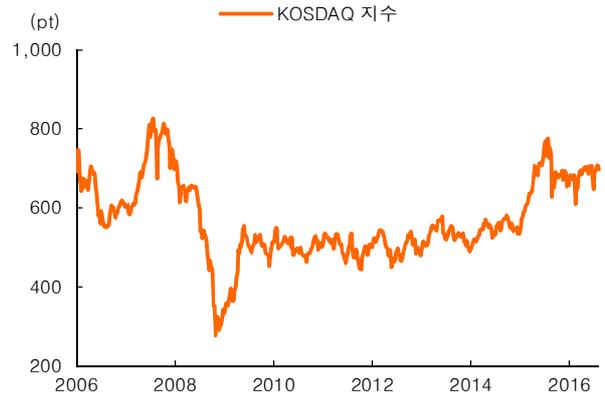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그림 16. 장기 KOS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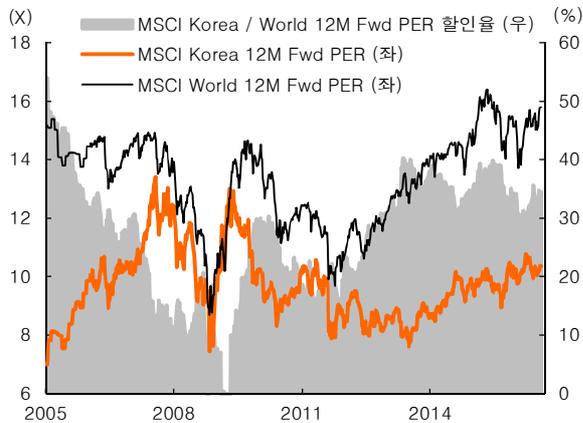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그림 17. 장기 KOSDA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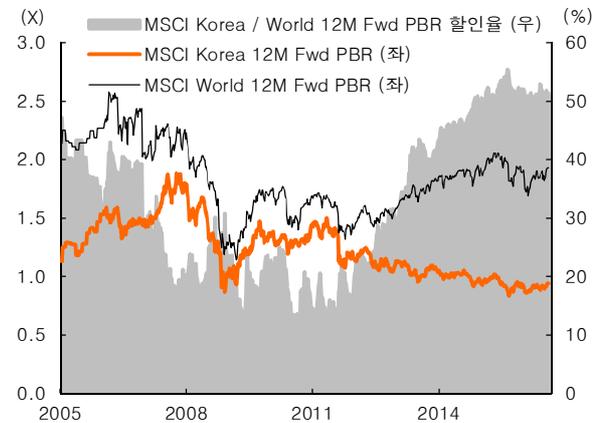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그림 18. MSCI Korea / World 12M Fwd PER 할인율



자료: Thomson Reuters,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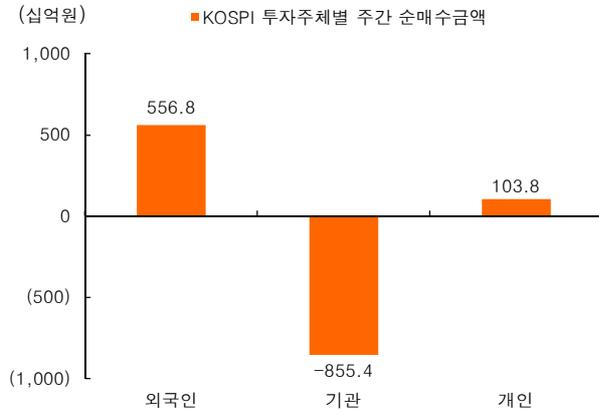
그림 19. MSCI Korea / World 12M Fwd PBR 할인율



자료: Thomson Reuters,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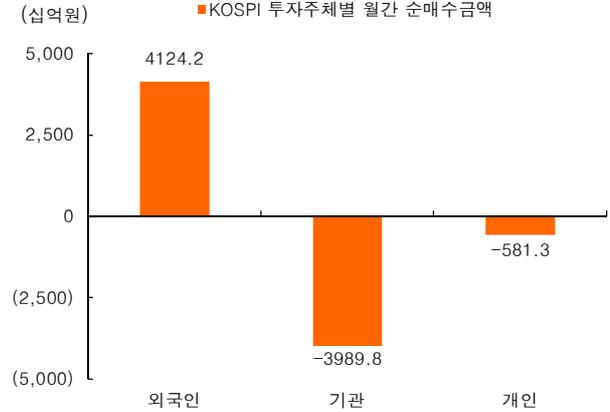
주간 KOSPI 주간수익률 (+0.09%), KOSDAQ 주간수익률 (-1.44%)

그림 20. 주간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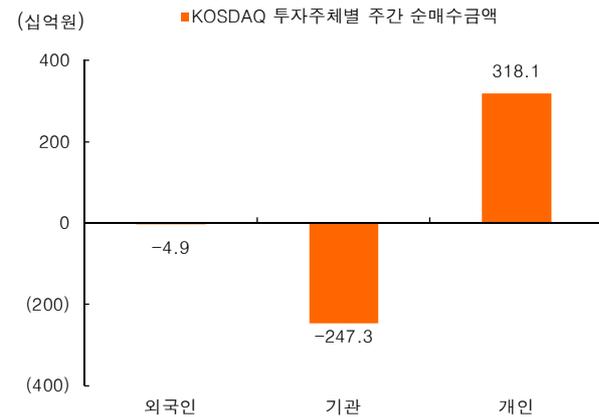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그림 21. 월간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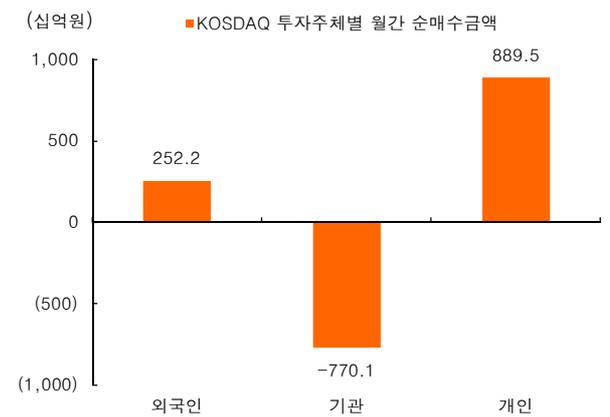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그림 22. 주간 KOSDAQ 투자주체별 수급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그림 23. 월간 KOSDAQ 투자주체별 수급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표 5. 주간 외국인 주요 종목

외국인 KOSPI			
순매수 상위 (십억원)		순매도 상위 (십억원)	
아모레퍼시픽	96.5	현대상선	-101.7
NAVER	83.2	삼성전자	-53.3
엔씨소프트	54.0	기아차	-38.6
LG유플러스	46.5	삼성엔지니어링	-23.8
LG생활건강	46.1	LG전자	-21.3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외국인 KOSDAQ			
순매수 상위 (십억원)		순매도 상위 (십억원)	
에스티팜	25.3	CJ E&M	-11.2
SK머티리얼즈	8.4	인바디	-9.8
유진테크	7.8	동진메미캠	-4.8
포스코 ICT	5.7	모두투어	-4.3
원익PS	5.4	케어젠	-4.1

표 6. 주간 기관 주요 종목

기관 KOSPI			
순매수 상위 (십억원)		순매도 상위 (십억원)	
삼성전기	48.2	아모레퍼시픽	-139.1
현대중공업	43.0	동양	-96.3
삼성에스디에스	40.7	LG생활건강	-73.9
KT	36.2	삼성전자	-69.3
KCC	34.0	엔씨소프트	-56.8

자료: Dataguide, KB투자증권

기관 KOSDAQ			
순매수 상위 (십억원)		순매도 상위 (십억원)	
AP시스템	15.9	CJ E&M	-41.6
셀트리온	9.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8.8
에스에프에이	7.7	에스티팜	-24.0
비아트론	5.4	에스엠	-15.6
동진메미캠	4.9	오스템implant	-12.1

주간 해외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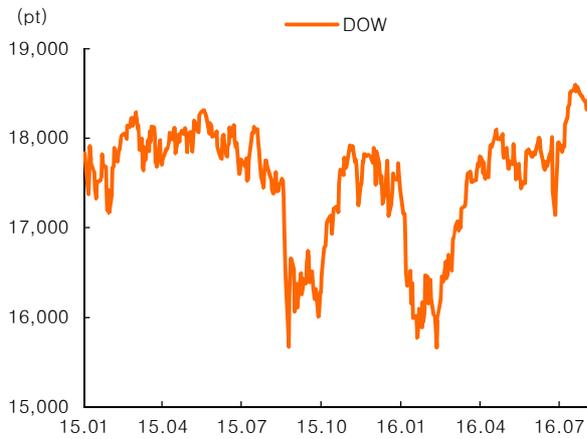
표 7. 주간 미주, MSCI 지수

아메리카	종가	1W	1M	3M	12M
DOW	18543.53	0.6	2.2	4.5	6.7
Nasdaq	5221.12	1.1	5.3	10.2	3.5
S&P500	2182.87	0.4	2.5	6.1	5.1
Brazil	57661.14	0.6	8.5	11.5	18.7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주: 2016년 8월 6일 14:00 기준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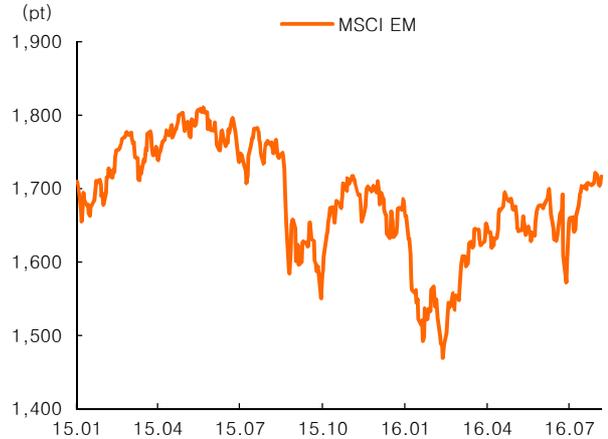
MSCI	종가	1W	1M	3M	12M
WORLD	415.58	-0.1	3.6	5.0	-1.5
DEVELOPED	1716.65	-0.3	3.3	4.5	-1.8
EMERGING	885.52	1.4	6.8	10.0	0.1
ASIA Ex Japan	533.71	1.3	6.6	9.8	-1.4

그림 24. DOW 지수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그림 25. MSCI EM 지수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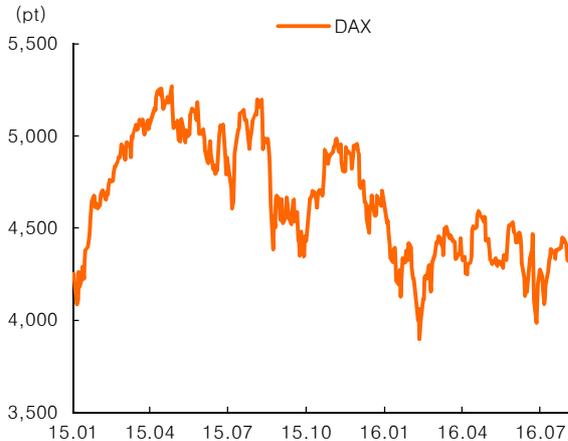
표 8. 주간 유럽, 아시아 지수

유럽	종가	1W	1M	3M	12M
FTSE100	6793.47	1.0	3.1	10.9	1.1
CAC40	4410.55	-0.7	5.2	2.5	-14.4
DAX30	10367.21	0.3	7.7	5.0	-9.8
IBEX	8539.40	-0.6	4.3	-1.9	-23.6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주: 2016년 8월 6일 14:00 기준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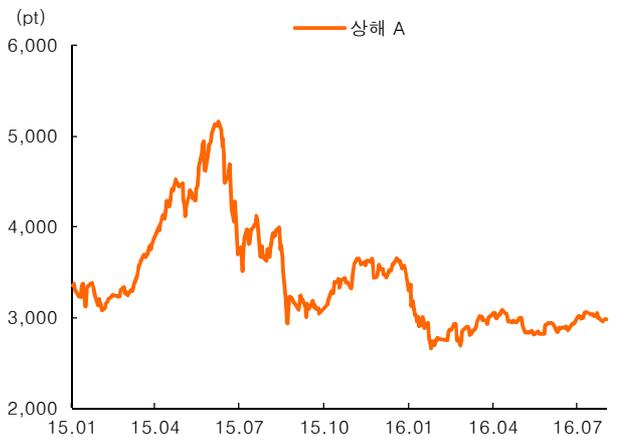
아시아	종가	1W	1M	3M	12M
NIKKEI 225	16254.45	-1.9	7.6	0.9	-21.6
대만 가권	9092.12	1.2	5.2	11.6	7.7
홍콩 H 지수	9131.52	0.5	7.0	7.8	-18.7
상해A주	3116.08	-0.1	-0.4	2.2	-20.6

그림 26. DAX30 지수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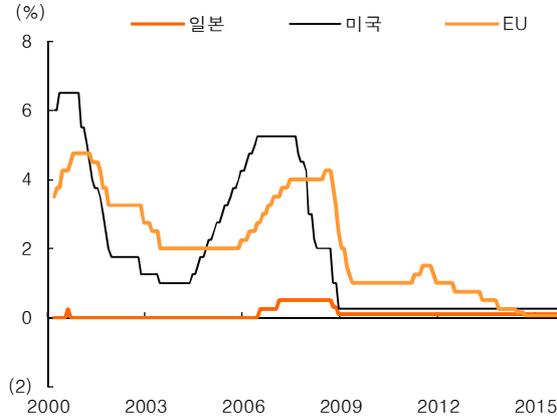
그림 27. 상해 A주 지수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주요국 금리 추이 및 Money Flow

그림 28. 선진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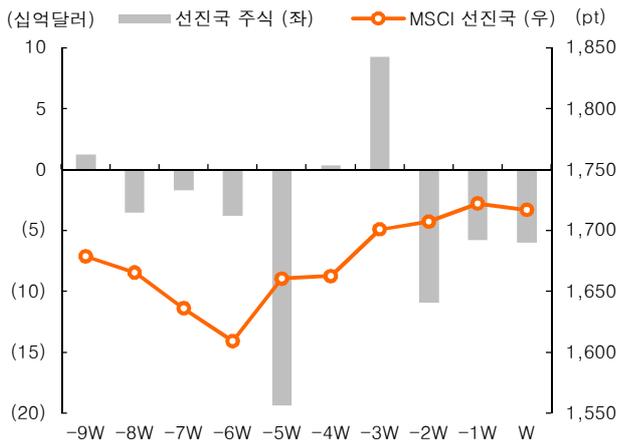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B투자증권

그림 29. 신흥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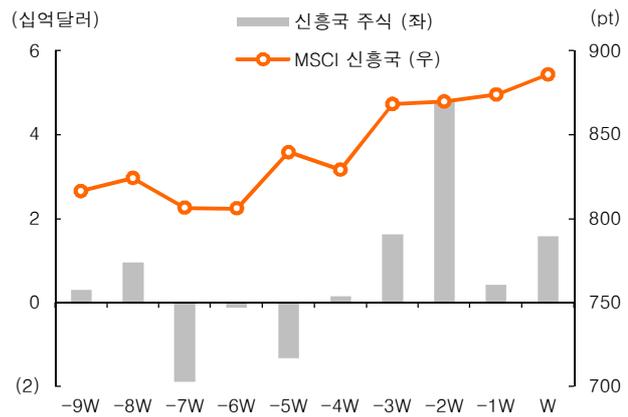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B투자증권

그림 30. 선진국 주식형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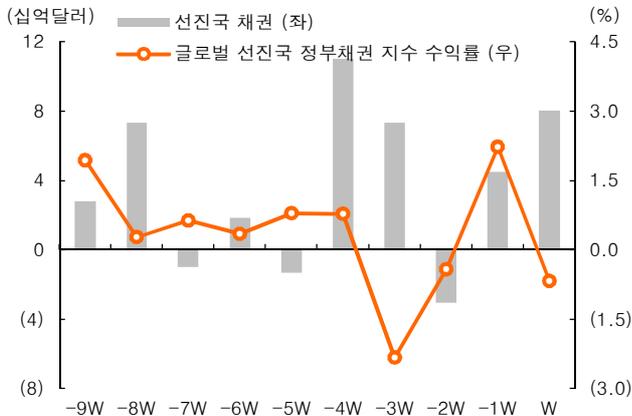
자료: EPFR, Bloomberg, KB투자증권
주: Fund Flow, MSCI 지수는 8월 3일 기준

그림 31. 신흥국 주식형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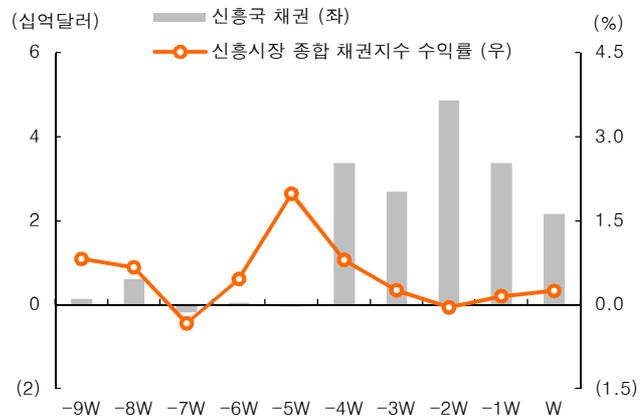
자료: EPFR, Bloomberg, KB투자증권
주: Fund Flow, MSCI 지수는 8월 3일 기준

그림 32. 선진국 채권형 Fund Flow



자료: EPFR, Bloomberg, KB투자증권
주: Fund Flow, MSCI 지수는 8월 3일 기준

그림 33. 신흥국 채권형 Fund Flow



자료: EPFR, Bloomberg, KB투자증권
주: Fund Flow, MSCI 지수는 8월 3일 기준

주간 상품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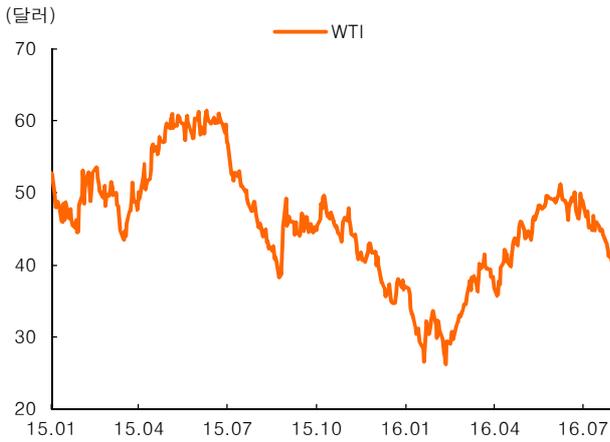
표 9. 주간 상품가격 동향

원유	증가	1W	1M	3M	12M
WTI	41.8	0.5	-10.3	-5.7	-7.4
Brent	44.27	4.3	-7.7	-1.6	-10.7
Dubai	40.62	5.0	-8.6	-3.0	-16.3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주: 2016년 8월 6일 14:00 기준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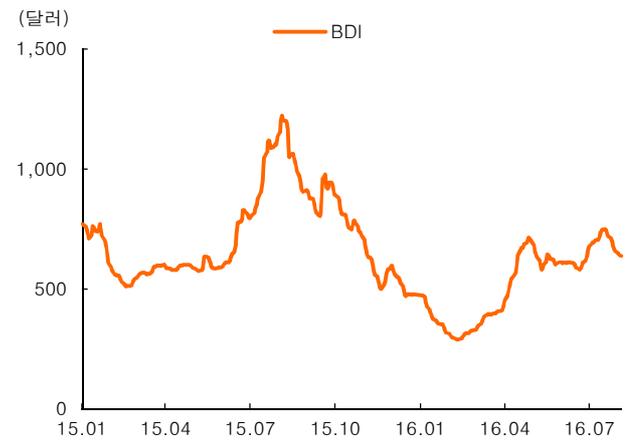
BDI / 반도체	증가	1W	1M	3M	12M
BDI	636.0	-3.0	-9.5	0.8	-47.0
DRAM 2Gb	1.2	0.9	0.9	10.5	-18.3
NAND 32Gb	2.54	0.4	-0.4	4.1	2.0

그림 34. WTI 원유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그림 35. BDI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표 10. 주간 상품가격 동향

귀금속	증가	1W	1M	3M	12M
Gold	1344.4	-1.0	-1.1	5.7	23.8
Silver	19.7	-3.8	-1.9	12.5	33.1
Copper	215.4	-3.0	-1.4	0.0	-8.3
Cotton	76.74	3.6	17.7	24.2	20.8
Nickel	10715.00	0.8	10.4	18.8	-1.3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 주: 2016년 8월 6일 14:00 기준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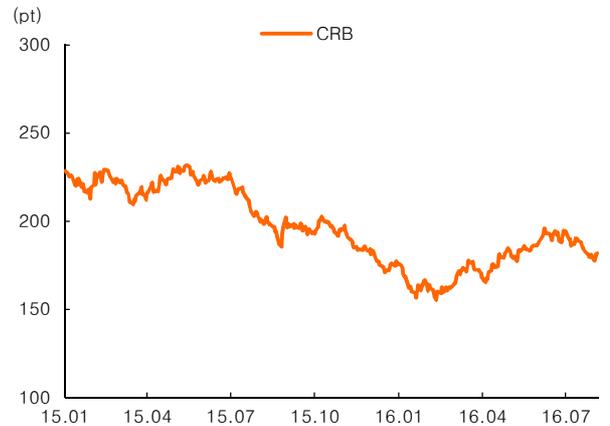
상품	증가	1W	1M	3M	12M
CRB	181.8	0.4	-2.9	1.0	-8.3
Soybean	974.5	-2.8	-9.5	-3.7	2.2
Wheat	416.0	2.0	-4.0	-10.2	-17.1
Corn	334.3	-2.5	-4.7	-10.6	-12.8
Sugar	20.4	6.8	-2.5	28.5	89.1

그림 36. 금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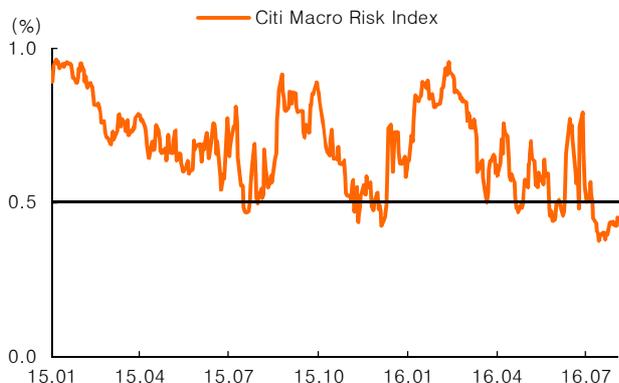
그림 37. CRB Index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변동성 지수

그림 38. Citi Macro Risk Index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그림 39. Citi Economic Surpris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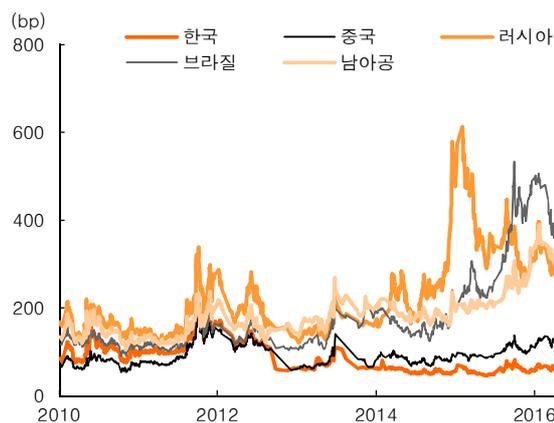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그림 40. 선진 주요국 CDS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그림 41. 신흥 주요국 CDS



자료: Bloomberg, KB투자증권

Event Calender

전략 R.A 서영재 연구원 (3777-8093)

표 11. Event Calend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31	1 증권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2 호주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삼성 갤럭시노트 7 공개	3	4 BOE 통화정책위원회	5	6 브라질 리우 올림픽 (~22일)
7	8	9	10	11 한국은행 금통위 MSCI Quarterly Review 읍선 만기일	12	13 특별법 (원샷법) 시행
14	15 광복절 휴장	16	17	18 7월 FOMC 의사록 공개	19	20
21	22 브라질 리우 올림픽 (종료) 항공 변동성조절기제 도입	23	24	25 잭슨홀 미팅 (~27일)	26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표결	27 잭슨홀 미팅 (종료)
28	29	30	31	9/1	9/2	9/3

자료: 각 언론, KB투자증권
주: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 기준

표 12. 8월 2주차 주요 Event

Event	날짜	해당국	Issue
한국은행 금통위	8/11일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1년 만에 전격 인하 (0.25%p)한 이후 7월은 금리 인하의 효과와 브렉시트 향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만장일치 동결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수는 전월보다 25만 5,000명 증가.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 또한, 지난 6월 고용도 기존 28만 7,000명에서 29만 2,000명 증가로 상향 조정.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향되면서 8월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
특별법 (원샷법) 시행	8/13일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 시행과 함께 8조 7,000억원의 금융지원 시행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전용 지원자금 2조 5,000억원, 기업 투자촉진 1조원, 시설 투자촉진 1조 5,000억원, 사업 재편 우대 보증 2,000억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3조 5,000억원. 기존의 고용 지원과 정부연구 과제 확대, 정부·공기업 출자 펀드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수준
MSCI Quarterly Review	8/11일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기 (5월, 11월)와 분기 리뷰 (2월, 8월)로 통상 연간 4번의 지수 구성 종목 조정

자료: 각 언론, KB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발간일 현재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